금융시장 10월 동향 및 11월 전망

미래전략개발부 경제조사팀
이 건 무 (kmlee@kdb.co.kr)

10월 주요 경제·금융 이벤트

■ **한국은행은 7·8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점검하며 기준금리 동결 결정(3.00%)**
- 금번 동결 결정을 7·8월의 선제적 금리인상에 대한 성과로 평가하면서,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

■ **美 연준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물가지표에도 기준금리 동결 결정(4.00%)**
- 직전 금리인상 이후 시장의 인플레이션 기대 관련 지표의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, 향후 정책 판단을 위한 추가 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준금리 동결

■ **美 주요 빅테크는 AI 투자수익성 우려 속에 3분기 실적 발표**
- 마이크로소프트는 양호한 클라우드 성장과 현금창출력으로 시장 우려를 완화한 반면, 알파벳·아마존은 기대 이하 실적과 대규모 설비투자에 따른 현금흐름 부담 부각

□ (환율) 10월 원/달러 환율은 금통위의 매파적 동결로 하락, 11월도 긴축 기조가 유지되며 하락 요인이 우세한 가운데 美 중간선거 결과가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

○ 10월 원/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,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외환 수급 개선과 한국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 등으로 하락

* 달러인덱스(p): 101.47('26.9.30일) → 102.0(10.15일) → 101.7(10.21일) → 102.0 (10.30일)

-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로 우호적인 수급 환경이 조성되었으며, 금통위에서 향후 물가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강조하며 긴축적 정책 기조를 유지한 점도 환율 하락에 기여

○ 11월에도 한은의 긴축에 대한 경계감이 원화 강세를 뒷받침할 전망이나, 美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으로 환율 변동성은 확대될 전망

- 한국 성장률 및 물가 전망치 상향 조정이 유력한 가운데 이에 대응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원화 강세를 지지하는 한편, 美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재정, 통상정책 변화 가능성이 환율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

원/달러 환율 및 달러 인덱스

	'26.3월말	'26.6월말	'26.9월말	'26.10월말	전월대비
원/달러 환율	1,515.7	1,549.4	1,356.9	1334.3	△1.7%
달러 인덱스	99.893	101.163	101.473	101.962	+0.48%

자료 : 연합인포맥스

□ **(금리) 10월 한·미 시장금리는 글로벌 증시 조정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하락, 11월에는 각국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가 이어지며 완만한 상승 예상**

○ 10월 한·미 시장금리는 양국 중앙은행의 매파적 통화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AI 투자 불확실성에 따른 글로벌 증시 조정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며 하락

- 한국 금리는 한국은행의 매파적 동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국채 발행 축소 등 수급 개선, 증시 조정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하락
- 미국 금리는 높은 금리 수준에 따른 저가 매수 유입, 증시 조정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하락

○ 11월 금리는 각국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가 지속되며 소폭 상승 전망

- 한국은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 기조가 시장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정부의 국고채 발행 축소 등 수급 개선 조치가 지속되며 상승폭을 축소할 전망
- 미국은 9월 CPI와 PPI가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등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어 연준의 추가 긴축 기조가 시장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

한국 및 미국 국채금리

	'26.3월말	'26.6월말	'26.9월말	'26.10월말	전월대비
한국국채 3y	3.552	3.703	4.011	3.715	△29.6bp
한국국채 10y	3.879	4.091	4.407	4.008	△39.9bp
미국국채 2y	3.829	4.155	4.887	4.581	△30.6bp
미국국채 10y	4.314	4.435	5.293	4.929	△36.4bp

자료 : 연합인포맥스

□ **(주가) 10월 한·미 주가지수는 AI 인프라 투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며 기술주 중심의 조정 시현, 11월에는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전후로 변동성 확대 전망**

○ 10월 주가지수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 지속과 AI 인프라 투자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 확대 등으로 하락

- 특히 국내 증시는 中 창신메모리의 기술 추격 우려와 美 클라우드 업체 코어위브의 신용위험 부각 등으로 반도체 등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의 조정 시현

○ 11월 주가지수는 한·미 중앙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주요 AI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전후로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

- 엔비디아와 AMD 등 美 주요 반도체기업의 실적 발표가 AI 투자 지속가능성과 향후 반도체 업황에 대한 투자 심리를 좌우할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

한국 및 미국 주가지수

	'26.3월말	'26.6월말	'26.9월말	'26.10월말	전월대비
코스피	5,277.3	8,476.5	6,838.0	5,730.7	△16.2%
코스닥	1,107.1	916.2	855.9	724.4	△15.4%
S&P500	6,528.5	7,499.4	7,651.5	7,580.1	△0.9%
나스닥	21,590.6	26,213.7	26,861.1	25,437.0	△5.3%

자료 : 연합인포맥스